



지난 6월 29일 업무를 개시한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각 기관의 직원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하여 민원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찾아 제공해 나가고 있어 센터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고용·복지서비스 한곳에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호응'... 기관 따로 방문 시민 불편 덜어내

지난 6월 29일 업무를 개시한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각 기관의 직원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하여 민원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찾아 제공해 나가고 있어 센터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남원시 향단로 39번지(하정동, 한화생명빌딩 1층)에 위치한 남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지금까지 각 기관별로 제공하여 오던 고용지원과 복지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그 동안 남원시청과 읍·면·동주민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을 따로따로 방문하던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남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는 남원시의 취업알선센터, 복지상담 및 통합사례관리, 자활지원,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 남원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실업급여, 고용보험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서민금융지원센터도 입주하여 있어 서민금융상담 및 신용회복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남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업무를 시작한 지 약 2달간 입주 기관간 업무협조를 통하여 약 56건의 서비스연계를 처리하였으며,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일자리 찾는 시민들이 일자리 뿐만 아니라 본인의 형편에 적합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상담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7월 취업을 위하여 남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였던 김모씨는 고용상담을 받고 저

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여 교육을 통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연령이 많고 자신감이 없어 쉽게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센터내 자활담당자에게 연계되어 취업상담과 차상위 자활보장복지서비스에 책정되고 남원 관내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 시민의 삶에 플러스가 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자리잡기 위하여 다양한 고용과 복지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찾고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강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정

임실군은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강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공모사업 선정으로 오는 2017년부터 국비 42억원을 포함해 총 60억원을 지원 받아 국가무형문화제 필봉농악과 삼진강 등 지역 대표 자원과 고유테마를 살려 기존의 복지회관을 '하늬 행복나루센터'로 리모델링에 나선다.

또한, 느린 풍류길 정비 등 기초생활 확충사업과 시장일대를 '맛깔시장'으로 정비하는 한편 생태놀이터, 예술공원 조성 등의 지역경관개선사

업을 비롯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 체감형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심민 군수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낙후된 기초생활 개선 및 배후마을 서비스가 증진될 것"이라며, "삶의 질과 만족도가 향상되고 특히 서부권 행복거점 실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사업신청에 앞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한 높은 주민 이해도를 바탕으로 발전포럼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 및 의견을 결집한 후 민·관의 협력관계를 이끌어 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의료기관 의료기구 소독실태 일제 점검

관내 의료기관 30개소

순창군이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불법의료시술과 의료기관 의료기구 소독실태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감염병 없는 지역 만들기에 나섰다.

군은 최근 관내의료기관 30개소에 대해 의료기구 소독실태, 멸균실태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실질적 조사를 위해 관내 의료기관 30개소에 대해 의료원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의료기구 세척 담당자 지정, 인종된 소독제 사용 유무, 멸균기 종류, 주기적인 의료기구 감염관리 교육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1회용 기구의 재사용 여부 등도

집중 점검했다.

군은 혈액으로 전염되는 감염병의 경우 의료기기 소독여부나 재사용 등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감염병의 또 다른 전파 이유로 주목받고 있는 불법의료시술 등에 대해서도 경찰서와 공조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불법 의료시술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아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행정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병 발생이 늘고 있다"면서 "이번 의료기구 소독실태점검과, 불법의료시술 행위 단속을 통해 지역내 감염병을 사전에 100%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원영 기자

순창군, 여성·아동범죄 예방 CCTV 설치

군비 5천여만원 투자

순창군이 여성과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100%군비 투자 CCTV 설치를 추진해 여성친화도시 순창 만들기에 한 걸음 다가갔다.

군은 최근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물자미끼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여성과 아동범죄 예방 CCTV설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실제 순창군은 지난 6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 여성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조사대상 중 25.5%가 CCTV 확대를 요청한 바도 있다.

이번에 설치하는 CCTV는 100% 군비로 5천여만원이 투자되며 여성과 아동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5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이번 CCTV설치를 위한 장소 선정에 공을 들였다.

군과 경찰서 업무담당자 등이 직접 순찰 시내를 걸어서 물자미끼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지역인 장소를 선정했다.

주요 주택가 골목이나 야간에 인적이 드물고 어두워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이다.

군은 9월말 사업을 착수해 12월까지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운영에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순창군은 지난 7월부터 12억원을 투자해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운영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관제센터는 13개 부서에서 용도별로 설치되어 각각 운영되고 있는



순창군이 여성과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100%군비 투자 CCTV 설치를 추진해 여성친화도시 순창 만들기에 한걸음 다가갔다.

CCTV를 공간적·기능적으로 통합 운영해 관리의 효율성을 배가하는 사업이다.

주정차단속용 CCTV를 업무시간 종료 후 방범용으로 활용하고 24시간 운영해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순창 만들기의 핵심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85%공정률을 보여 다음달이면 하드웨어 구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순창군은 2017년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20개사업을 선정했으며 2018년까지 59억을 투자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순창=이원영 기자



순창경찰, 김향순 명창 초청 강의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은)는 19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9월중 경찰교양이카데미를 개최했다.

경찰교양이카데미는 전남도립국악단원인 김향순 명창을 초청하여 '우리 소리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평소 알지 못했던 판소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 날 강의는 추석특별방문활동을 마친 경찰관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자리로 큰 호응을 얻었다.

구림과출소 김준수 경위는 '판소리가 구비서사문학의 독특한 발전이며 한민족이 지니온 음악언어로 종합예술 중 하나라는 말에 "재삼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규은 서장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강의 듣고 경제·사회·문화 등 지식과 간접경험을 쌓는 것은 물론 전통문화의 가치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원영 기자

임실군, 학교주변 사전 위생점검

임실군은 학교주변 문방구, 분식점 등 위생 취약 우려가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위생점검'에 나섰다.

이번 위생점검은 9월 중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주변 식품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무신고 영업 및 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허위·과대 표시, 정사지해 식품 제조 및 판매 등 부정 불량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식중독 예방부기 조성을 위해 지역 언론, 이장회의, 안내전단을 통한 예방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군 보건의로원은 오는 10월까지 식중독 상황처리반을 구성해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학교급식소,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집중관리 및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군 관계자는 "식중독예방은 음식물 섭취 전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관리가 중요하다"며, "식중독 발생 시 상황처리반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정신건강센터 자살예방 캠페인

고창군정신건강증진센터(센터장 임소연)가 19일 유동인구가 많은 고창농협하나로마트 인근에서 '자살예방·생명존중'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군민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자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생명나무에 사람의 메시지를 적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을 비롯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이동상담도 함께 진행했다.

고창군정신건강증진센터 임소연 센터장은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자살문제는 주변사람들의 관심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지역 주민이 생명존중 분위기 확산에 동참하는 캠페인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군정신건강증진센터는 오는 21일까지 자살예방 주간으로 정하여 지난 12일 고창군실내체육관에서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오는 21일에는 고창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자살예방·생명존중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고창군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063-563-8751~2, 8738~9)로 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새 단장'

고창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이 물 교체 등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장했다고 19일 전했다.

고창군(군수 박우정)에서는 군민의 쾌적한 시설이용과 수질관리를 위해 6일부터 잠시 휴장을 하고 수영장 용수 약 360톤 전량을 배수 후 수영장 바닥타일 보수와 수영장 여과제 교체 등 최상의 수질관리를 위한 시설 보수를 완료했다.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은 2001년 개장 이후 군민의 사랑을 받는 시설로 거

듭나기 위해 꾸준한 시설을 보완해 왔다. 특히, 지난 2015년도에는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위해 지상에서 수영장장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 중이다.

이런 고창군의 노력으로 4개 학교에서 150여명의 학생과 하루 평균 250여명이 수영장을 찾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사랑받는 여가공간이 될 수 있도록 수질 개선 등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구독문의 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